

# '강령' 에대한러시아아나키스트들의 답변

리아, 몰리슈타이머, 로만에르반티안, 슈바르츠, 세냐  
플레신, 소볼, 볼린

리아, 몰리슈타이머, 로만에르반티안, 슈바르츠, 세냐플레신, 소볼, 볼린  
'강령' 에대한러시아아나키스트들의답변  
1927

# 차례

아나키스트운동의약점에관하여 . . . . .	3
아나키스트의합명제 synthesis 에관하여 . . . . .	3
계급적이론으로써의아나키즘에관하여 . . . . .	4
사회적투쟁및사회혁명에서대중과아나키스트의역할에관하여 . . . . .	4
이행기에관하여 . . . . .	6
생산에관하여 . . . . .	7
혁명의방어에관하여 . . . . .	8
아나키스트조직에관하여 . . . . .	9
조직건설의방법론 . . . . .	10
아나키스트조직의역할과성격 . . . . .	11
아나키스트조직의구성 . . . . .	12

## 아나키스트운동의약점에관하여

우리는‘아나키스트운동이취약한가장중요한이유가조직적원칙의부재’라는『강령』의입장에동의하지않는다.『강령』은‘아나키스트운동에정치적·전술적입장’을만들중앙집중화된조직(당)을건설하고자하기에,우리는이문제를중대하게바라본다.“강령”은조직의중요성과역할을과장한다.

우리는아나키스트조직을반대하지않는다.우리는조직의부재가아나키스트운동에가져온해로운결과를이해한다.우리는아나키스트조직의건설이우리의시급한과제중하나라고판단한다.하지만우리는그조직이만병통치약이될것이라믿지않는다.우리는조직의중요성을과장하지않으며,우리는조직을위해아나키스트의원칙과이상을희생해야할필요성을발견하지못한다.우리는아나키스트운동의약점이다음과같다고판단한다.

1. 사회혁명의개념에관한, 폭력에관한, 이행기에관한, 조직에관한우리의 혼란.
2. 다수대중에게우리의이상을납득시키는과정의어려움. 이는선입견, 관습, 교육, 다수대중이급진적변화보다안정을원한다는사실에근거한다.
3. 탄압.

## 아나키스트의합명제 synthesis 에관하여

또한우리는『강령』이언명하는바‘합명제’에동의하지않는다.『강령』의저자들은아나키즘적코민주의가유일하게유효한이론이라주장한다.그리고그들은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들과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들에대하여부정적태도를취한다.

나뱃(NABAT, 1917년부터 1921년까지존재했던우크라이나아나키스트의조직)을조직했을때,우리가선언했던바를다시반복하도록하자.“모든아나키스트사상의분파에는유효성이있다.우리는다양한경향성모두를고려하고,용인해야한다.”모든투사들을단결시키기위해,우리는각각의분파의장점들을바라보고,공통의기반을찾아야한다.『강령』에는전체운동의관점에서이러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다른『강령』들에서는이것이가능했다.쿠르스크나뱃총회

에서의 성명이나, 당대 아나키스트 총회에서 의결론들 같은 것 말이다. 우크라이나 아나키스트 조직 총연맹 (나뭇) 의 1 차 총회 (1919 년 4 월 2 일, 우크라이나 엘 리바베스 그라드) 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조직은 서로 다른 경향들이 각각의 관점을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노동 대중에게 이데올로기적 정표를 제공해 줄 수 없는, 기계적 동맹을 대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연방의 기반 위에서 계획되고 조직된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여러 위치에서 있는 동지들의 동맹이다.”

## 계급적 이론으로써의 아나키즘에 관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명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아나키즘이 계급적 이론이라고 확언하거나, 아나키즘에 인간성을 부여하려는 이들을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아나키즘이 모든 인민의 인본주의적 이상이라 주장하는 이들처럼 마르크스주의와는 다른 계급 기반적 입장을 가진 아나키스트들을 비난할 수도 없다. 또한 우리는 아나키즘이 오롯이 개인적이며 인간성이나 '계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가질 수도 없다. 우리는 합명제를 만들어야 하며, 아나키즘이 계급적 요소와 인본적 요소와 개인주의적 요소를 모두 포괄한다고 선포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모든 요소들이 아나키즘을 이론적, 실천적으로 구성하는데 있어 각각의 역할과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아나키즘이 오직 계급성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나키즘을 단일한 관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아나키즘은 마치 삶 그 자체와 같아서 보다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다. 아나키즘의 계급적 요소는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아나키즘의 인본주의적 성격은 그도덕적 부분을, 사회의 근간을 구성한다. 아나키즘의 개인주의적 성격은 인류의 목표를 구성한다.

## 사회적 투쟁 및 사회 혁명에서 대중과 아나키스트의 역할에 관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강령』이 제시하는 테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대중은 지도되어야만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운동이 지향해 온 관점과는 정반대다. 우리

하지만, 우리는 이 '수용'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강령』에 대한 논의가 오해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지고있다는것에서크게바뀌는것이아니라고본다. 우리는아나키스트들이대중을선도해야한다는생각을거부한다. 우리는조직의역할이이데올로기적협동을통해그구성원과유관자들이사회적역할을겸손하게수행하도록하는것으로한정되기를소망한다.

## 아나키스트조직의구성

이저점에있어 『강령』은모순적이고, 사실상스스로를자백하며, 언어상으로는우유부단하다. 하지만많은방어적입장에도불구하고그들의관념은결국정당의그것으로보인다. 아나키스트총동맹의집행위원회는동맹의총체적이데올로기적, 전술적방향을따라모든조직들에게이데올로기적이고조직적인방향을설정해야한다. 동시에 『강령』은위와모순되는연방주의적원칙에대한신념을확고하게드러낸다. 연방주의는근본적으로자유성을, 지역그룹의연방을, 연방의동맹으로써의총연맹을상징한다.

조직들간의일정한이데올로기적, 전술적단결은필수적이다. 하지만어떻게, 어떤방식으로그단결을만들것인가? 우리는다시금우크라이나의조직나뭇이받아들이는결책을언급한다. ‘공식적동맹이라기보다는수단과목적에관한공통된생각을가진구성원들의모임으로써의조화로운아나키스트조직’이그것이다.

『강령』은“아나키즘은언제나중양집중화된조직을거부해왔다”고확언한다. 하지만그들은완전히집행위원회를통한이데올로기적이며조직적인지침이하달되는중양집중화된조직의그림을그려낸다. 그리고이조직을통해노동자의직업적조직에지침을내릴것이라한다.

연방주의는어디로갔는가? 『강령』의저자들은볼셰비즘으로부터단한발짝만다르다. 그리고 『강령』의저자들은감히이한발짝을내딛지못한다. 볼셰비키와“강령주의자”들의공통점은러시아동지들에게공포로다가온다. 아나키스트당최고위원회라부르건, 집행위원회라부르건, 서기장이라부르건차이는없다. 아나키스트조직에적합한정신은, 서로다른지역그룹과연방들간의관계와상호부조와정보를위한기술적조직이다.

결론적으로, 『강령』이가지고있는독창적요소는, 그저자들이숨기고있는볼셰비즘적수정주의와이행기의수용에있다. 『강령』의나머지부분은전혀독창적이지않다. 타국의동지들에게이것은명확하지않을수있다. 러시아혁명과, 러시아에서의아나키즘에대한논의가다른언어로출판되지않았기때문이다. 그렇기에타국의동지들은러시아혁명에서무슨일이벌어졌는지를잘알지못한다. 그들중일부가 『강령』의해석을수용한것은이에기인할것이다.

는지금까지개인과식적소수, 그리고그들의이데올로기조직들이“대중을지도할수없다”고주장해왔다. 대중을막다른길로인도하고싶지않다면, 우리는언제나대중으로부터배워야한다.

우리는이문제를이관점으로바라보아야한다. 『강령』이제안하는해결책은매우피상적이며오류가득하다. 그런해결책으로는혁명적대중과의식적소수, 혹은그들의이데올로기조직의관계에관한핵심적문제가해결될수없다. 이저점에서정당들은확고한해결책을가지고있다. 그들의해결책은다음과같다.

- 대중과혁명은지도되어야만하고
- 의식화된소수가대중과유리되어주도권을가져야만하며
- 이‘집단’은당으로조직되어야만하고
- 당은사회혁명을포함한사회의모든영역에서주도권을가져야한다.

『강령』의저자들은이와유사한입장을취하는것으로보인다. 다만그들은방어적입장을먼저취한다. “혁명적행동과혁명운동에대한이데올로기적지침은아나키스트들이새로운사회건설의통제권을줘야한다는것으로이해되어서는안된다.”

『강령』이표현하는바대중을지도할필요성에대한관념은직관적으로당과, 잘정비된정치노선과, 사전준비된계획과, 노동운동의통제와, 반혁명에대항하기위해세워진조직에대한정치지도와연결된다. 『강령』은 “아나키스트총동맹은사회혁명의조직으로써, 사회의두핵심계급인노동자와농민들에의존한다. … 그들의모든활기는노동자조직의이데올로기적지침에집중되어야한다”고언급한다.

대중을정치적, 사회적으로지도하기위한조직의구체적형태와그활동태는, 가장높은곳에전위당 (총동맹), 약간아래에동맹이이끄는노동자와농민의조직, 더아래에반혁명에대항하기위한기반으로세워진조직 (군대) 이있는형태가될것이다.

우리는아나키스트들이대중을이끌어야한다고생각하지않는다. 우리가생각하는우리의역할은대중이필요로할때대중을돕는것이다. 이것이우리가보는우리스스로의위치다. 아나키스트들은경제적, 사회적대중조직의구성원이어야한다. 아나키스트들은전체의일부로서행동하고건설해야한다. 대중의위에서지않더라도이데올로기적으로, 사회적으로, 창조적으로, 활동할수있는영역은아주넓다. 무엇보다아나키스트들은자유롭고자연스러운방식으로, 그들의이데올로기적이고도덕적인영향력을충족하여야한다.

아나키스트와그조직 (그룹, 연맹, 총연맹) 은단지이데올로기적도움을줄수있을뿐지도자가되어서는안된다. 지도나우월성에대한작은언급조차도필연적으로대중은지도자를받아야하고, 그지도에복종해야한다는합의를담을수밖에없다. 그리고이것은지도자를독재자로만들고대중으로부터유리되게할것이다.

다시말해 권력의 원칙인 것이다. 이 원칙은 아나키즘의 핵심이념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사회혁명과도 모순된다. 혁명은 대중의 자유로운 창조물이어야 하고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그룹의 통제를 받아서도 안된다.

## 이행기에 관하여

『강령』은 이행기 원칙을 부정하면서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강령』이 최초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행기 개념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서뿐이다. 다른 모든 내용은 이행기를 정당화하고 있다.

일부러시아 아나키즘적 조합주의자들 anarcho-syndicalists 은 공개적으로 이행기 개념을 옹호했다. 『강령』의 저자들은 이행기 개념을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옹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우유부단함과 상황적 판단들은 이 문제에 대한 솔직하고 논리적인 토론을 어렵게 만든다. 이를테면 그들은 아나키스트 운동에서 다수와 소수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명한다. “원칙적으로 (고전적 개념은 어찌 어찌하다.) 하지만, 특정한 시기에는 (타협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삶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소비에트의 결정이 강제적 명령 없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그것에 동의한 모두의 의무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이것이 강제와, 폭력과, 규제의 시작이 아닌가?

『강령』은 다음과 같이 언명한다.

“통치를 인정하는 것은 혁명의 패배이자 대중의 예속임을 인지하고 있기에, 우리는 혁명이 아나키스트적 방법론을 따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소규모 활동가 조직에 근거한 노동자 조직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조직은 구체적 조직에의 해인이 되어야 한다.”

아나키스트 총동맹은 논의를 선도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에 관한 답을 결정할 것이다. 이것이 쟁점이다. 우리는 혁명의 방어에 관한 언급에서도 유사한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군대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노동자들이 단일한 조직으로 대변되지 않기에, 그들은 다종다양한 경제 조직들을 조직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군대의 원칙을 도입한다면, 우리는 군대가 노동자와 농민의 경제 조직에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을 도입해야...”

이것이 바로 이행기다!

『강령』에 묘사된 방법론은 단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부각시키고, 논쟁을 촉발하며, 우리들을 적대심으로, 나아가 증오로 이끌 것이다.

『강령』의 저자들이 주장하는 ‘유일하게’ 참된 이론과 전술은 부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나키스트가 행동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다. 우리는 다른 절차를 제안한다. 우리는 아나키스트 운동의 단결을 확보하고, 진지한 조직을 구성하는 첫 걸음은 핵심적 문제에 대한 가장 명확한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한 집단적 이데올로기 작업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철학적, 학술적인 형설 수설을 경멸하는 동지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하고자 하는 것은 철학적 문제나 추상적 논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불운하게도 명확한 답을 가지지 못한 구체적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아나키즘의 건설적 과업에 관하여, 대중과의 식화된 소수의 역할에 관하여, 폭력에 관하여, 사회혁명의 과정에 대한 분석과 이행기 문제에 관하여, 자유의지주의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자·농민 조직의 역할에 관하여, 무장집단에 관하여,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관하여, 코뮌주의와 개인주의의 관계에 관하여, 우리 세력을 조직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하여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데올로기와 전술이 ‘공격적’이거나 ‘금기’라 할지라도 논의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이 논쟁을 출간할 것을 제안한다. 구두 토론뿐 아니라, 이러한 기관지 역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것만이 ‘이데올로기적 단결’, ‘전술적 단결’, 그리고 조직을 달성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이 기 때문이다.

물론, 기관지를 통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동지들도 있다. 그들은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출판물들을 선호한다. 우리는 아나키즘에 포함되는 모든 의견과 경향성을 포괄하고, 그 안에서 각각을 대변하며, 이로써 함께 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 단일한 기관지를 선호한다. 단일한 기관지를 통해 우리의 문제에 대한 온전하고 관용적인 논쟁을 촉발하는 것은 아나키스트들뿐 아니라 아나키즘의 서로 다른 관념간 이해의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이상을 조직적 방법으로 함께 논의하는 합의는 평행선에서 진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아나키스트 조직의 역할과 성격

조직에 있어 역할과 목적은 근본적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지니지 못하면 진지한 조직은 존재할 수 없다. 조직의 목적은 그 형태에 의해 결정된다. 『강령』의 저자들은 그 역할에 대해 대중을, 노동조합을, 다른 모든 조직들을, 그들의 행동과 발전을 선도하는 것으로 두었다. ‘선도한다’는 단어를 ‘이데올로기적’이라는 단어와 병치한다고 해서, 『강령』의 저자들이 조직을 규율을 지닌 정당으로 인

되어야한다. 조직건설의방법론에관한사항, 조직의목표와요체에관한사항, 그 형태에관한사항이그것이다.

## 조직건설의방법론

아나키스트조직은왜건설되어야하며, 어떻게건설되어야하는가? 이질문에 대하여답하기전에아나키스트들사이에존재하는조직부전의중요한요인에대하여이해해야한다. 『강령』의저자들은“일부아나키스트들이‘불쾌한’성격을가지고있고, ‘무책임’하며, ‘기율이부족’하다”며이를명쾌하고단순하게설명한다. 우리는아나키스트운동의조직부전의이유중가장중요한것은우리의기본적이상중일부가가지고있는모호하고부정확한성격이라고본다.

『강령』의저자들역시이에동의한다. 그들은‘이론과실천의모순’에대해, ‘결론없는의심’에대해이야기한다. 이질문에대해서는두가지해결의방법론이존재한다. ‘모순된이상들’중하나를택하여이를공통의계획으로채택하는것. 필요하다면규율을가진조직을건설한다. 동시에이계획에동의하지않는사람들은배제되거나운동으로부터추방되어야할것이다. 이렇게만들어진조직(유일한조직)은나아가그이상을명확히할것이다.(아나키스트의이상은충분히명확하다고믿는동지들이있다.) 진지한조직이만들어진이상, 우리는우리의모든활력을기울여우리의이상을명확히하고, 심오하게하며, 발전시키기위한노력을다해야할것이다.

무엇보다우리는이론의영역에서‘모순’을줄이고자노력해야한다. 조직을건설하기위한노력은우리의이데올로기적작업을도울것이다. 다르게말하면, 우리는우리의세력을조직하는동시에우리의이상을발전시키고체계화할것이다.

『강령』의저자들은조직을단일한이데올로기적, 전술적개념에근거하여조직을건설하는것이오래된방식이라는것을잊었다. 그들이건설하고자하는조직은동일한개념을공유하지않는다른조직들과적대적인관계를가질수밖에없다. 그들은이오래된방식은결국필연적으로과거와동일한결과, 즉단일한조직구성의실패를가져올수밖에없다는것을이해하지못한다. 그리고이조직들은협력적이고조화로운관계를가지지못하고서로갈등을빚을수밖에없다. 그들모두가아나키스트임에도말이다. 각각의조직은독자성을, 자신만의심오한진리를주장할것이다. 이조직들은아나키스트운동을도울수있는선전물과활동을개발하기보다오히려서로간의격론에빠지게될것이다.

『강령』의저자들은‘이데올로기적이고전술적인단결’의필요성을부르짖는다. 하지만어떻게단결할수있는가? 이것이문제이며, 정답은존재하지않는다.

『강령』은언론과표현의자유에대해, “언론이혁명의이득을위해통제될수있는특정한시기가있을수있다”고언급한다. 누가“특정한시기”를결정하는가? 누가그“한계”를결정하는가? 다른이름으로부른다고권위와권력이권위와권력이아니게되는것이아니다.

『강령』은아나키즘의원칙이“능력에따라일하고필요에따라분배하는”것이라고적는다.

“이원칙은아나키즘적코뮌주의의근간이다. 하지만이것은원칙적개념이다. 그실현은혁명초기에지나야하는실질적단계들에의존한다.”또다시‘하지만’이다. 이것이이행기가아니면무엇이이행기인가?

대중을선도할필요성에대한생각이나왔고이것은공권력의요소를, 이행기적요소의필요성을불러낸다. 논리적으로명확하다. 반면우리는사회혁명의핵심요소는노동대중이역사적경험을통해사회적파괴에밀어넣어넣어짐으로써, 스스로무엇을하는지인지한채, 자유로운사회를성취하는것이라본다.

## 생산에관하여

생산은어떻게조직되어야하는가? 생산은불세비키들이조직한것처럼중앙집중적이고계획된방식으로조직되어야하는가? 아니면연방주의에근거하여탈집중화되어야하는가?

이것이가장중요한논점이라할수있다. 『강령』의저자들은다음과같이기술한다. “생산의조직은소비에트, 공장위원회등노동자들이구성한조직에의하여이루어져야한다. 이조직들은도시, 지역, 국가적생산을지도하고조직할것이다. 이들은그들을선출하고통제하며, 언제나소환할권리가있는대중들과밀접하게관계를맺을것이다.”

『강령』은선거라는단순한교정만을제외하면, 중앙집중화되고기계적인체계를수용한다. 이는충분하지않다. 우리는선거를통해행정부의이름을바꾸는것은큰변혁이아니라고생각한다. 기계적이고생동력없는과정은결코살아날수없다. 지금까지우리가주장한바와마찬가지로대중의참여는‘선거’로제한되어서는안된다. 대중은생산의조직에즉각적으로참여해야한다. 원칙적으로우리는위원회들을거부하지않는다.(공장위원회, 작업장위원회등) 또한우리는그들간의관계와협동의필요성을부정하지도않는다. 하지만이조직들은부정적인 측면들을가지고있다. 경직성, 관료제, 선거만으로자연스레바뀌지못할권위화의경향이그것이다. 우리는매일의생활과활동의과정에서자연스럽게발생하여증가한더유연하고, 임시적인기구를만드는것이더낫다고판단한다. 즉, 분배의기구, 소비

자기구, 주택기구등등말이다. 이모든기구들이함께함으로써, 사회생활의복잡함을더잘반영할수있을것이다.

## 혁명의방어에관하여

『강령』은이문제를다음과같이바라본다.

“혁명의첫날, 무장한노동자와농민들이이투쟁력을구성하여야한다. 하지만 이러한자발적무장력은초기에만유효할것이다. 내전이최고조로치달고, 양측에서정식적으로구성된군사기구를만들고나면, 그유효성은줄어든다.”“무장혁명세력은통일된지휘체계와작전계획을가진혁명군에근거를두어야한다.”“혁명의방위기구는다. 주요한군사적전선뿐아니라, 내적전선(부르주아지의음모, 반혁명행동의준비)에서반혁명과의전투를책임진다. 이방위기구는전적으로노동자와농민의생산조직의관할아래에있어야한다.”

우리는이서술에서기술적오류하나와정치적오류하나를발견한다. 기술적오류는이것이다. 오직중앙집중화된군대만혁명을수호할수있다는것. 혼란을방지하기위해, 우리는그정반대인‘오직고립된지역부대의독자적투쟁만이혁명의승리를담보할수있다는것’도잘못되었다고본다는사실을먼저적시하도록하자. 다만고도로집중된지휘체계가총체적작전행동을구성하는것은재앙을부를수있다. 협력이없는행동은비효율적이다. 전자는지역적상황을고려하지못하게한다는단점이있다는것은자명하다. 지역적, 개인적주도권을약화시키는것, 집행기구에무게를두는것, 중앙을실패할수없는것으로여기는경향, 전문가들에우위가주어지는것역시중앙집중적명령체계의약점들이다. 후자의단점은자명하다.

그렇다면이문제를어떻게해결할수있는가? 우리는, 러시아에서의경험에비추어, 무장한노동대중의참여는혁명초기뿐아니라투쟁전체에걸쳐꾸준히이루어져야한다고본다. 노동자와농민의지역적조직은그들의행동이독자적인것이아니라, 공통된목표를향한협력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인지할수있어야한다. 그리고더큰규모의무장조직을요하는상황이도래한다할지라도, 지휘체계는중앙집중되어서는안된다. 필요할때에는효과적공동투쟁이필요할것이지만, 그전선은변화하는상황에쉽게적응할수있어야하고, 예측불가능한상황을이용할수있어야한다.

데니킨 Denikin, 콜차크 Kolchak, 브란겔 Wrangel 등의반동세력과의투쟁에서파르티잔부대들이승리하였다는것을잊어서도안된다. 중앙의지휘체계와선협적전략계획을가지고있던중앙군은언제나기습당했고, 이에적응하지못했다. 많은경우중앙집중화된적군은늦게도착했고, 진정한승리자인파르티잔들

로부터월계관과영광을수여받기만했을뿐이다. 언젠가역사는군사적중앙집중의관료성에관한진실을보여줄것이다.

공고한중앙군이없이혁명을외국의개입으로부터수호하는것이가능한가에 대한질문이있을수도있다. 우선이위험성이과장되어서는안된다. 대부분의경우 이러한면으로부터의개입은어려움을수반한다. 또한, 러시아혁명역시이러한개입들을겪었지만그어려움들은중앙군이아닌파르티잔부대에의하여, 대중의적극적저항에의하여, 침략군의병사들에대한격렬한혁명적선동에의하여격퇴되었다.

무엇보다우리는통일된지휘체계와‘정치적지도’를받는중앙군은혁명군을멈출가능성을너무많이내포하고있다는사실을지적해야만한다. 그군대는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퇴보의, 반동의, 혁명을죽이는도구가될것이다. 과거의역사에서이러한교훈은충분히확인할수있다. 가장가까운예로, 러시아혁명에서적군의역할을보라.

군대를‘정치적수호자’, ‘반동을향한무기’라칭하는『강령』의입장은놀랍다. 우리는이러한기구는사회혁명에부정적인역할만을할수있다고바라본다. 열정을가지고무장한인민들이혁명의핵심적문제(특히생산의문제)에대하여긍정적인답을낼때에만‘부르주아지의음모’에대한충분한방어를제공할수있다. 그리고인민들이실패한다면어떠한‘기관’도, ‘군대’도, ‘체카 tcheka’도혁명을수호할수없다. 이관점에반대하는것은정치적의욕을입지않는한혁명의문제는대중의관심을끌수없다는것에동의하는것과같다. 그리고그것은전형적인볼셰비키적관념이다.

우리는이로부터다음과같은결론을도출한다. 대중조직을지도하는지도자격의조직(동맹)에의한정치적지도, 그리고그지도를뒷받침하는중앙군은새로운정치적권력일뿐이다.

## 아나키스트조직에관하여

이제다시우리가고민하는바, 조직의문제로돌아오자. 세계아나키즘운동의조직부전이큰해를끼치고있다고바라본다. 우리는세력들과운동들이반드시조직되어야한다고믿는다. 하지만조직을건설함에있어, 다음 3 가지의사항이고려